

## 2021 국가 기도의 날 “미주 한인교회,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2021 국가 기도의 날 남가주 연합기도회가 5월 6일(목) 오후 7시부터 LA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진행된다.

캘리포니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감소세에 있어 이날 기도회는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뿐 아니라 대면으로 진행된다. 이날 기도회는 실내 정원의 50%인 3천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기도회를 주관하는 미주성서화운동본부는 미국 각 지역 한인기독교회연합회를 중심으로 미 전역의 모든 한인교회가 국가 기도의 날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주 한인들은 이날 ▷회개 운동과 코로나19 종식 ▷미국의 지도자와 평등법 저지, 아시안 증오범죄 중단 ▷미국의 청교도 신앙회복과 부흥 ▷한국 교회와 복환을 위해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 송정명 목사는 “미국은 나라가 어려울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며 “미



미주성서화운동본부는 지난 20일, LA JJ그랜드 호텔에서 2021 국가 기도의 날 연합기도회를 위한 교계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독일보

주에 살고 있는 모든 한인 성도들이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맞은 미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기도

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순영 목사는 “전 미주의 한인들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미국의 지도자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범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며 “미주의 한

인들이 이 나라를 영적으로 재건하

는데 앞장서는 민족이 되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신승훈 목사는 “동성애와 낙태가 범람하고 기독교 가치관이 파괴되

는 등 미국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미주 한인교회가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전했다.

박성규 목사는 “청교도 신앙으로 건국 된 미국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시대에하나님께서 한인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이라며 “미주에 살고 있는 한인 성도들이 제2의 청교도가 되어 미국과 한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회개하며 기도하자”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가 기도의 날은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제안하고, 1952년 미국 의회가 공동 결의하고 트루먼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제정됐다. 이후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이 5월 첫 번째 목요일을 기도의 날로 정한 이래 미국 전역만 7천여 곳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국가적 기도회다. 김동욱 기자

## ‘디자이너링갓’ 작가 폴 맥스웰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 아냐”

웹사이트 ‘디자이너링갓’ (Desiring God) 작가이자 ‘더 트라우마 오브 독트린’(The Trauma of Doctrine)을 저술한 폴 맥스웰(Paul Maxwell)이 자신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선언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맥스웰 작가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사람들과 만남이다. 나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을 준비도 되었다.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모든 친구들과 이곳에서 받은 지지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기독교인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말 좋은 느낌이고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폴 맥스웰 작가. ©휘튼 칼리지 영상 캡처

이어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며,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어떤 종류의 만남을 가질 수 있을지 발견하고 싶다.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난 정말 좋은 곳에 있으며, 아마(이곳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지점일 것이다. 처음으로 기쁨이 충만하다. 내 인생을 사랑한다”고 했다.

신학박사이기도 한 맥스웰 작가는 신학, 트라우마, 운동에 관해 글

을 써왔다. 그는 “당신이 기독교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이며, 실제로는 정말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긴 독자에게 “다만 당신이 날 사랑하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싶다. 나도 안다. 그리고 사랑으로 받았다. 당신이 내 영혼의 상태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내가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SNS 이용해 내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도 안다. 이것은 좋은 일이며, 사랑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

맥스웰 작가는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부인한 유명 기독교인들 중 가장 최근의 인물이다. 작년 캐

나다 록 밴드인 호크 넬슨의 보컬리스트 존 스테인그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했다”면서 “하루 밤 사이에 내린 결정은 아니”라고 했다.

2019년에는 기독교 베스트셀러였던 ‘노 데이팅’(I Kissed Dating Goodbye) 저자 조슈아 해리스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난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신앙 생활을 위한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마음이 열려있길 원하지만, 지금으로선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플로리다 잭슨빌에 위치한 실로 메트로폴리탄 침례교회 H. B. 찰스 주니어 목사는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이 서구

교회에 ‘경고’로 작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찰스 주니어 목사는 “믿음의 인내는 내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날 붙들고 계신 것이다. 우리는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찬양할 필요가 있다. 신앙을 쌓고 신앙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 이국적이거나 특별한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실한 목회자와 예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함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러한 표류는 계속될 것이다. 다음 세대에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고, 성도들이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질,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it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1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8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대법원, 캘리포니아 가정 내 종교모임 제한 규정 금지

### 종교 모임 3가구 제한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배



미 대법원 ©Pixabay

미국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려진 기도회와 성경공부를 포함해 가정 내 종교모임에 대한 제한 규정 시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가정에서의 종교 모임을 3가구로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했으며 대법원은 이같은 규정은 종교 행사를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는 가정 내 종교 활동과 비슷한 세속적인 활동을 더 선호했으며 미용실, 소매점, 개인케어 서비스, 영화관, 스포츠 행사, 실내 레스토랑 등은 한곳에 3가구 이상을 모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산타클라라 카운티 제레미 워 목사와 카렌 부쉬는 캘리포니아주 규정에 대한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이들은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 소그룹 가정 교회로 모이는 것이 때

우 중요하다고 믿고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성경공부, 기도 모임, 예배를 열어왔다.

대법원에서선 5대 4로 금지 명령 찬성 쪽이 우세였다. 금지 명령에 찬성한 판사는 클라런스 토머스, 사무엘 알리토, 닐 고서치, 베틀 캐버너, 에이미 코니 배럿이었다. 금지 명령에 반대한 판사들은 엘레나 케건, 소니아 소토르마요, 스테판 브라이어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케건 판사는 “일반적으로 환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상호작용이

더 오래 지속되는 개인 가정에 모임 때보다 소풍이나 이발사를 방문하는 동안 감염 위험이 낮다”고 주장하는 하급법원 결과를 인용했다.

케건 판사는 “캘리포니아주는 가정에서 열리는 종교 모임을 3가구로 제한했다. 주정부가 가정에서의 모든 세속 모임을 3가구로 제한한다면 수정헌법 제1조를 준수한 것”이라며 “주정부가 내린 규정은 종교적, 세속적이든 모든 종류의 모임에 대해 포괄적인 제한을 채택했다”라고 주장했다.

김동욱 기자

## 메릴랜드 벤엘교회 “어려운 이웃들과 하나님 사랑 나눠요”

### 시니어, 환자들 위한 반찬 배달 진행



메릴랜드 벤엘교회는 교회 인근 노인들을 방문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전달했다.

메릴랜드 엘리콧 시티에 소재한 벤엘교회(담임 백신종 목사)는 지난 10일 시무권사회 주관으로 교회 인근 시니어들과 장기환자 가정, 홀로된 유가족들에게 코로나 케어패키지를 전달했다.

코로나 케어패키지는 각 가정에 필요한 국과 죽, 각종 반찬세트가 담겨있어 오랜 팬데믹으로 건강이 악화된 노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됐다. 벤엘교회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 까지 매일 1회 봉사자들과 함께 이웃들에게 반찬을 배달할 계획이다.

사역에 참여한 한 봉사자는 “부모님과 형제에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며 “모두들 기쁨과 감사가 넘쳐 교회가 마치 행복한 잔치집 같았다”고 즐거워했다.

코로나 케어패키지를 전달 받은 가정에서도 교회의 돌봄과 위로의 손길에 감사의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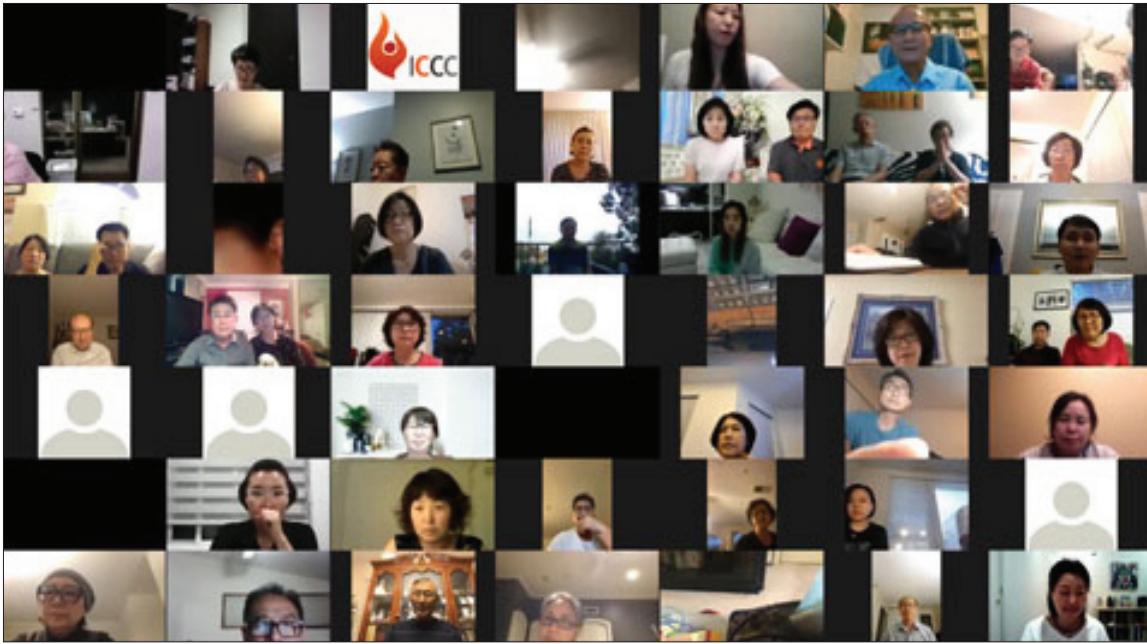
를 전해오기도 했다. 음식을 전달 받은 한 가정에서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이웃들을 향해 애정어린 관심으로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어서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드린다”고 고마워했다.

벤엘교회는 “점차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과 노인들을 더 많이 섬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벤엘교회는 콜럼비아 커뮤니티 케어(CCC)와의 협력으로 매주 100여 가정 이상에 필요한 음식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오는 17일(토)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방위군 및 카운티 보건국과의 협력해, 성도들과 주변 이웃 800여 명을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 주안에교회, 한선희 목사 초청 이단대책 세미나 열어



미이연 한선희 목사가 주안에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단대책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주안에교회(담임 최혁 목사)는 지난 7일과 14일,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회장 한선희 목사를 초청해 ‘이단의 이해와 신천지’라는 주제로 이단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안에교회는 “미주에서도 이단 사이버 종교로 인해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단을 바로 알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해를 당하지 않고, 또 이웃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210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한선희 목사는 이단의 정의와 계보를 비롯해 특별히 미주 지역 한인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신천지의 교리와 전도방법 등을 소개했다.

한선희 목사는 “신천지는 미주 지역의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독교리를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미나는 오는 21일(수)과 28일(수) 오후 7시 30분에도 zoom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비교종교 △한국의 종교심성 △기독교 이단의 개념 △이단의 특성 △이단 분별의 기준 △이단계보 △이단에 끌리는 요인 △이단의 변성이유 △이단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 △이단을 예방하는 길 △회개자에 대한 자세 △신천지 이만희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문의)818-363-5887 주안에 교회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특허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 박순애 전도사 초청 특별 부흥성회

4월 22일(목) ~ 4월 25일(주일)

주제: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다.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다.

장소: 주님의영광교회 비전센터(본당)

\* 자세한 문의는 주님의영광교회 행정실(213-749-450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p><b>첫째날</b> 4월 22일(목) 7:30pm  <b>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자</b> (시40:17)</p>	<p><b>셋째날</b> 4월 24일(토) 7:30pm  <b>반드시 복주고 복주며</b> (히6:4)</p>
<p><b>둘째날</b> 4월 23일(금) 7:30pm  <b>영적 한계를 뛰어넘자</b> (고전1:18)</p>	<p><b>넷째날</b> 4월 25일(주일) 8:00am, 10:30am, 1:00pm  <b>환난의 강을 건너라</b> (시50:15)</p>

# 미주장신대 '교수진 강화, 원격 교육' 통해 주류 신학교로 자리매김

### 이론과 실습 겸비, 사역 현장 적용 가능한 강의 구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이하 미주장신대)가 상담심리학과와 선교학과 디렉터로 김경준 교수와 정용갑 교수를 각각 영입하고 명실상부한 한인 주류 신학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미주장신대는 이번 디렉터 임용을 바탕으로 역량있는 교수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특별히 그동안 내실을 인정받은 블랜디드 교육(캠퍼스 강의를 zoom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와 병행하는 방식)과 100퍼센트 원격교육(온라인)으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어디서나 한인들이 모국어로 어느 신학교보다 양질의 강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경준 교수는 올 가을 상담학 학부 과정 개설을 시작으로 박사 과정도 개설해 미주 장신대 상담학 과정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임상 실습을 겸한 실천적 교육으로 실제 목회환경에서 활동할 기독교 상담진



본사를 방문한 김경준 교수(왼쪽)와 정용갑 교수(오른쪽). 김경준 교수는 성균관대학교와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해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기독교 상담으로 석사, 풀러 신학교에서 임상 심리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용갑 교수는 육군사관학교와 침례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사우스이스턴 침례신학교에서 신학 석사,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독일보

문가를 배출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목회는 만남이다.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성도들을 만나는 목회자들에게는 깊은 영성을 토대로 용납과 공감을 이루는 치유 목회적 소

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론 중심의 수학을 넘어 다양한 배경의 교인들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받아들 수 있는 상담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갑 교수는 지난 12년 동안

풀러 신학교대학원에서 가르친 경험과 풍부한 학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미 주류 선교학을 한인들에게 소개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지역적 한계에 갇힌 선교학이 아니라 목회와 신학을 포괄해 '복음화'라는 대

사명 아래 선교의 폭넓은 개념을 소개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선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자 사명이다. 그동안 선교를 지역적 개념이나 한정된 사람들만의 사역이라고 봤다면 이제는 좀 더 깊은 차원의 선교를 통해 우리 사회와 이웃을 돌보아야 한다"며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현대 사회 젊은 세대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목회 현장에서 복음이 왜곡되지 않고 온전히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주장신대는 한국직장선교대학과 맺은 사역협약을 통해 올해 봄부터 한국의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선교학 석사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더욱 주목된다.

미주장신대는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 신학교로 1977년 설립 이후 오프라인과 온라인 과정에서 복음주의 신학 교육을 제공하는 선교지향적 신학교다. 2011년 ABHE 정회원 자격 취득, 2017년 11월 ABHE로부터 선교학철학박사과정 인가, 2018년 6월에는 ATS로부터 정회원 자격을 취득했다. 김동욱 기자

# 영김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동맹이기에 더욱 필요"

15일 진행된 '톱 란토스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청문회에서 한국 이민자로서 현재 미국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 김 의원이 참석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타당성과 이 법안이 갖는 위헌성에 대해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먼저 영 김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한국 내 정치인사의 발언을 의식한 듯 "한국 내에서는 이것이 국내 문제이며, 오늘 청문회가 그들의 정부에 대한 외국의 간섭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논의할 더 많은 이유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친구끼리는 서로 책임을 지고 더 나아가기 위해 서로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의 이번 청문회와 관련, '내정간섭'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던 정치인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그는 정치인 중 가장 친북반미 성향이 노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 김 의원은 특히 미국 내 한국 이민자들이 한국을 향해 갖는 정서와 관련, "한국 국내 상황은 한국계 미국인 사회에도 큰 관심사"라면서 "이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이상에 대해 우

리 두 나라가 책임을 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명분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 김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 용어와 관련해서도 "실제 한국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애매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다음은 영 김 의원의 청문회 발언 주요 내용이다.

대한민국과 일본과 대만은 태평양 민주주의의 등불이며 민주적 대표성을 갖는 선량한 정부가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다. 중국 공산당이 홍콩을 정복한 것과, 수백 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미얀마 군부 사례를 볼 때 이들 국가가 갖는 의미는 더 중요하다.

민주주의 체제는 부패를 뿌리 뽑으면서도 국민들에게는 더 나은 권

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계 미국인 이민자로서, 저는 오늘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이것이 국내 문제이며, 오늘 청문회가 그들의 정부에 대한 외국의 간섭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더 많은 이유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국내 상황은 한국계 미국인 사회에 큰 관심사이며, 이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이상에 대해 우리 두 나라가 책임을 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명분을 준다.

지난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anti leaflets law)이 통과됨에 따라 이 법안은 위반자에 대해 무거운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대북 정보 송출을 단속하게 된다.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이 외부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



영 김 연방 하원의원 ©기독일보 DB

서 소망과 시민성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대북전단을 금지한 법안은 그 자체도 애매한 언어를 사용한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미 양국은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존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정신에 올바른 행동을 계승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정부를 건설하고 국민과 국민의 연결고리가 진정으로 뜻을 피울 수 있는 지속적인 국제 파트너십의 뚜렷한 이점을 제공한다.

대북전단금지법과 이에 따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들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두 나라는 민주주의 동맹국이자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우리 민족의 기본권을 지키면서 북한의 도전과 위협에 대해 함께 대응해야 한다. 김대원 기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원/영)과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건부 출신의 자천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충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관수리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제크오더링: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부해 드립니다.

**기쁨의 동산**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책의 추천자들:  
오대환목사(예수전도단), 주선애교수(장신대 영예교수) 이영희교수(예스대교단), 송정영목사(복음전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주말미주대), 신성원목사(동명대 대학이다), 유권자목사(동일포럼대표), 김민석목사(KCC공동대표)  
\* 영의 책은 아래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이런데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2021 - 2022 학년도 장학생 모집 공고**

기쁨우리교회 장학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에서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 4기 기쁨우리교회 장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

- ▶ 본 주소지 혹은 학교가 Southern California 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
- ▶ 외국 또는 타주에서 온 Southern California 내에 있는 2년제 대학 과정에 있는 학생
- ▶ Categories: i) General, (ii) PK & MK, (iii) Seminary

**선발 인원** 00 명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기쁨우리교회 홈페이지 [www.joyfulccc.org](http://www.joyfulccc.org)를 통해 자세한 신청 안내 받으시고 원서접수는 [scholarship2021@joyfulccc.org](mailto:scholarship2021@joyfulccc.org)로 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우편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ATTN: Scholarship Committee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P.O. Box 270, Glendale, CA 91209

기쁨우리교회 장학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03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치아파스 마누엘 목사에게서 온 전화(2)”

방학을 맞아 학부 재학생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간에 왓스앱으로 소통을 한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앱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많이 하는데 멕시코 및 남미에서는 'Whatsapp'을 주로 한다. 고향 소식과 그들의 교회 이야기들로 그들은 소통한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현재는 치아파스를 중심으로 대학원 과정 줌 동영상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19명의 교회 목회자들이 연일 수업을 진행하는데 참으로 진지하고 그들의 목회에 도움이 되는 과정들이다.

마누엘 목사가 물었다. “선교사님! 여름방학 중 치아파스에서의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4개월이나 되는 긴 여름방학 동안이지만 우리 선교사들의 방학 중 사역은 실 틈이 없어 보인다. 필자에게 신학대학 학장 임무를 인계한 입 선교사 가정은 이제 치아파스를 중심으로 한 대학원과 교회 개척지원, 선교센터 운영을 위해 치아파스 사역을 집중한다. 한 선교사 가정은 모처럼 안식년같이 3개월간 미국의 자녀 집과 형제 방문 그리고 어머니 방문 등 개인 휴식기를 갖는다.

필자의 가정은 하나님 은혜로 아들과 딸이 3주 간격으로 연달아 결혼식을 한다. 6월 5일 딸아이의 결혼식을 치르고 곧바로 신학교로 내려와 입 선교사 가정과 같이 6월 7일부터 치아파스 사역을 시작한다. 신학교 밴 차량으로 두 가정(4명)은 약 4일에 거쳐 치아파스 선교센터까지 운전하여 로컬로 갈 예정이다. 필자는 자동차로 하는 멕시코 로컬 일주 여행이 처음이다. 가는 길에 멕시코 곳곳에 있는 우리 신학교 동문 목회자들의 교회를 몇 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들을 격려하고 교제하고 축복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몇 교회는 이번 여름철 단기선교팀과 하는 줌 영상 사역을 같이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사역 장비들과 교재 등을 나누어 주게 된다.

이번 여름에는 3팀의 단기선교팀과 동역하게 된다. 첫째는 산호세 임마누엘교회 멕시코장로회 목장팀과의 동역이다. 팬더믹 상황에 맞게 인터넷 동영상 사역을 준비

한다. 치아파스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대학원 선교센터에서 여름 목회자 특강 세미나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치아파스 대학원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노트북을 20대가량 보급할 계획이다.

목회자 특강의 내용은 영상으로 IT(인터넷)의 목회자에게 유용한 프로그램과 사용법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목회학 관련 강사들이 목회자 영성과 사역 원리 등을 강의한다. 두 번째 사역은 유년부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VBS(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한다. 이 준비를 위해 우리 선교사들은 6월에 내려가 현지 통역 사역자, 교사, 준비위원 등을 선정해 현지 사역자들과 준비모임을 가지면서 7월에 있을 치아파스 인터넷 단기선교팀 사역을 동역할 것이다.

두 번째 단기선교팀은 멕시코 신학교교정으로 온다. 신학교 안의 시설 등을 보수할 것이다. 필자가 치아파스에서 올라와 7월부터 전담하게 된다. 학생들 빨래터를 새로 설치할 것이다. 예배당의 음향시설을 새로 설치하려고 한다. 이것을 위해 놀워 예수사랑교회 단기선교팀이 동역한다. 팬더믹 가운데서도 교인들이 함께 선교지를 찾는 선교 지향적 교회이다. 그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음향설치의 전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또 한팀이 있다. 시설보수 및 전기, 건축 관련 사역을 위해 필자의 오랜 선교 동역팀이 온다. 이렇게 신학교는 방학 중에 다음 학기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렇게 8월까지 이어지는 사역과 공사가 마쳐지면 8월 20일 무렵부터 재학생들이 오기 시작한다. 긴 방학을 지낸 학생들은 속히 학교에 오고 싶은 학생은 한, 두 주 먼저 오고 모두가 8월 말까지 도착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대망의 9월 새 학기를 15명의 신입생과 함께 시작하게 된다.

## 인문학으로 읽은 바울의 생애 ⑩ “바울의 제자 디모데”

사도바울의 생애를 살피면 꼭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의 부모, 스승 가말리엘, 바나바 등이 그런 인물입니다. 아울러 바울이 전도하고 양육하여 동역자로 세웠던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바울 혼자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동역자들의 협력과 헌신 까닭에 바울의 사역이 열매 맺습니다. 예컨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나, 에바브라디도, 오네시모 등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이런 점에서 디모데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가장 탁월한 제자요 동역자로 나아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요, 에베소 교회 후임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어로 티모테오스(Timoteos)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혹은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인 듯합니다. 디모데의 일생과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소아시아 갈라디아지역 루스드라(Lystra)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친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는 경건한 신자로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잘 가르쳐(딤후3:15)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모범 청년으로 양육했습니다(행16장). 바울의 2차 선교여행에서 만난 디모데는 실라(Silas)와 함께 바울의 동역자로 동행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그리스, 마케도냐, 로마 등지에서 전도하였고 에베소교회에서는 담임목회자로 사역하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하여 신실한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도움으로 적어도 다섯 교회(데살로니가;살전3:1~2, 고린도;고전 4:17, 빌립보;빌2:19~22, 에베소;딤후1:3, 베뢰아;행17:14)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을 때 목격했던 것으로 알려지니

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에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로 동행합니다. 디모데는 1차 선교여행 목격자로, 2차 선교여행 부터는 바울의 동역자로 동행했습니다. 물론 3차 여행도 함께 하면서 에베소교회 개척을 같이 합니다.

디모데 이름이 신약에 26회 등장합니다. 또 그에게 보내진 바울의 편지가 두 권이나 있습니다. 13개 바울 서신들 가운데 8권의 서두에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할례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딤후4:14)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주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고전4:17),” 믿음 안에서 참 아들(딤후1:2),”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딤후1:2)”로 표현하면서 특별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디모데는 A.D.17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서 디모데를 만날 때 주후 50년경이었고 바울은 48세, 디모데는 33세 경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구약을 배웠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유대인들을 위하여 바울이 할례 받을 것을 권하자 순종하여 할례를 받습니다. 이미 할례 부담을 없애자는 예루살렘 사도회의 결정이 있었지만 디모데는 할례를 받습니다.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디모데를 높이 평가(Highly value)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역 현장에서 디모데를 중용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동역하며 희로애락을 같이합니다.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길에도 디모데가 동행합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을 보면 로마 감옥 생활에서는 디모데와 함께 지냅니다. 선

교여행 중에 개척된 교회에서 디모데의 활약은 눈부십니다.

천주교 전통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80세 죽었다’고 말합니다. 폭스는 그의 저서 폭스의 순교사(Foxe's Book of Martyrs, 원제는 Acts and Monuments 이지만 순교사로 더 많이 알려짐)에 따르면 디모데는 주후 97년(디모데 80세) 에베소에서 우상숭배 축제를 준비하는 불신자들에게 헛된 짓을 버리라고 설득하다가 몽둥이에 맞고 앓다가 이를 후에 죽습니다.

초대 교회는 빛나는 디모데를 보여줍니다. 큰 지도자였던 속사도 교부 이레네우스(Irenaeus)는 디모데서신을 인용하면서 교회 밖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토 디모데서신을 수 차례 인용하면서 당시 강력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를 반박합니다. 터툴리안도 이단을 반박하면서 디모데서신을 수 차례 인용했습니다. 특히 마르시온과 진짜 성경경이 어떤 것인가를 다루는 정경(Canon)논쟁에서 디모데서신을 부정하는 마르시온을 공격하면서 디모데의 사역과 삶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18살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던 오리겐은 탁월한 영성과 학문으로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오리겐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이유로 ‘제2의 디모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리겐이 디모데를 따랐기 때문에 존경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디모데를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추앙하였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그리고 교회사에서 디모데는 신실하고 헌신된 신앙인입니다. 디모데의 헌신과 열정이 신약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우고 순종하는 겸손한 제자였습니다. 반면 바울도 디모데를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관계는 동역하기 어렵다고 하는 한국 교회에 큰 도전이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고, 바울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 교회의 부흥, 결코 포기할 수 없다!

## 교회의 부흥, 교회성장론과 목회성공에의 재인식(9)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어떤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처해 있든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명이요, 임무이다. 조엘 비키 박사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여섯 가지 특징들로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간추려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교회의 부흥이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회개의 사건들이라고 할 때에, 이는 전적으로 성령의 주권적 사역이다.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으로는 잘 알 수 없다. 마치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단독적이며, 주권적이며, 갑자기 일어난다. 다만 그 결과를 보아서 알게된다 (요 3:8).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의 프로그램이나 계획에 따라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예루살렘에서의 성령강림 사건이 어째서 당시 세계의 중심이던 로마에서나, 아테네에서 일어나지 않았던가! 복음을 이해하는 기초가 없는 자들에게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새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이 부흥이라고 할 때에,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의 단독사역이요, 하늘로부터의 인간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하심이다.

인간은 먼저 불교하고, 마른 뼈로 돌아간다. 이스라엘은 마치 마른 뼈들로 가득차 있는 골짜기와 같았다 (겔 37:1).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았을 정도로 완악함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니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성령님께서서는 거부할 수 없는 권능을 발휘하셔서, 먼저와 같고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회개게 하셨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이 붙고, 육이 회복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 교회의 부흥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조작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다.

둘째로, 진정한 부흥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졌다. 기도는 성령이 사용하는 수단이다.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120명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사도행전 2장, 성령의 부으심을 역사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고대했고, 마치 집에 돌아온 아이들



Pentecost mosaic Image by Holger Schué ©Pixabay

이 숙제를 하듯이 기도하고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할 때에, 먼저 기도의 영을 불리일으켰다. 기도의 열정마저도 성령의 지도와 가르침 안에서만 가능하다. 야고보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하였다 (약 5:16).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던 과정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져 하늘에 상달하는 수고가 있었던 것이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구원경륜의 계획을 실현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의 강림사건과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부흥사건들을 지식으로 알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 과거의 기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기도 운동과 부흥의 사건이 1857년 미국에서 일어났던 제 3차 각성운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섯 명이 미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시작된 제3차 각성운동은 1860대의 남북전쟁 후에 엄청난 전도의 열매를 맺은 무디의 부흥운동과 사회복음주의 운동으로 확산되어나갔다.

한국교회는 기도의 토대 위에서 운영되고 있다. 새벽기도회는 가장 큰 은혜의 산실이다.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는 경건의 연습이다, 은혜의 충만을 향해 나아가는 재충전

의 시간이기도 하다. 모든 교회마다 지역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성령의 충만을 소망하면서, 기도를 모아가야 한다.

셋째로, 부흥은 죄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리 안에서 회복되는 사건이다. 베드로가 삼 천명의 회심자들을 돌이키는 설교에서 통회하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였다(행 2:38). 회개는 전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

회개는 일시적으로 돌이키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도 있고, 일생 동안 날마다 지은 죄를 고백하는 지속적인 반복적인 다짐이기도 하다. 회심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오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의미한다. 그러나 회심하는 순간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성도의 신앙생활은 꾸준히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나가게 된다. 이것은 성화의 과정이요, 성숙의 시간들이다.

성령이 작용하는 부흥은 항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수반하였다 (행 2:41,44). 회개하고 돌이킨 심령 속에는 총체적으로 믿음이 심겨진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고전

12:3).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선조들은 보이지 않는 나라를 향해서 의심하지 않고 살아갔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도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도다”(히 11:13).

넷째로, 부흥은 새로운 신자들을 만들어내는 회개의 사건들일 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들의 각성과 성장을 통해서도 이뤄진다. 교회의 부흥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의 새로운 각성과 영적인 성장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수의 성도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체험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수 천명을 회심시키는 도구가 되었다. 부흥이라는 은혜의 폭풍이 불어오게 되면, 차가운 마음이 녹아내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동정심으로 가득하게 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흠으로 빛으신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다.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는 영적으로 차가운 상태에서 살아가다. 우리는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마치 영원토록 보장을 받은 인생인양 착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생시킬 때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

가 일어나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이 새로워지며, 사랑으로 봉사하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리가 회복되어서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한다. 태양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떠올라서 차차로 그 밝은 빛이 온 마을과 평야로 퍼져나가듯이, 진리에 감동을 받은 목회자들이 변하게 되고, 차츰 그들의 영향으로 교회가 밝은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기대한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내려 한다거나, 어떤 놀라운 목회적 방법론으로 따라가면서, 인간 중심의 부흥을 꿈꾸는 것이 아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놀라운 영적 성숙과 성장이야말로 부흥의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영혼들을 치유하심으로 가능하게 된다 (시 107:20).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중생하게 하셔야만 참된 부흥이 가능하다.

1857년, 뉴욕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제임스 알렉산더가 자신의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던진 질문들이다:

- 여러분은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는가?
- 여러분은 부흥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 여러분은 부흥의 방관자인가?
- 여러분은 부흥의 열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 여러분은 불신자들이 돌아오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가?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C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종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호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s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사,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팀 켈러 목사 “코로나 팬데믹 1년...대형교회가 이웃 교회 돕기 나서야”

미국 팀 켈러 목사가 코로나19가 전국 교회에 끼친 불균형적인 영향을 언급하며,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교회들이 사망, 질병, 재정적 손실로 힘들어하는 교회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켈러 목사는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유행병이 뉴욕시를 황폐화시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CP와 인터뷰를 했다. 당시 그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기독교인이 겪게 될 진정한 시험은, 아직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묵도하게 되는 수개월 후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당신의 공동체가 거의 코로나19에서 탈출하고 3~4개월 후에 관찰되었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일부 공동체는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수많은 실업자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당신은 더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교회들과 협력하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당분간은 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년 후인 최근 켈러 목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교회의 책임은 여러 면에서 여전히 불분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장 명확하고 시급한 결과는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대형교회들이, 큰 타격을 받은 교회들과 동역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고르지 못했다. 화이트칼라와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된 교회는 실제로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러나 서민들, 다민족, 저소득 주민들로 구성된 교회들은 대유행으로 파괴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진 교회들도 많고, 가진 게 없는 교회들도 많은데, 없는 교회들은 정말 큰 상처를 받고 있다. 이 교회들 중 많은 경우, 교인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지역에서 일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사망자들이 나왔다. 그곳의 교인들은 코로나19로 폐쇄된 기업에서 일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손실을 보았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대



팀 켈러 목사 ©A. Larry Ross Communications

부분 영향을 받지 않은 교회가 피해를 입은 교회와 협력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자금 이체다. 코로나19 초기 교회를 유지하지 못할까 봐 정부에게서 돈을 지원받은 교회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잘 지내고 있다”며 “그 돈의 일부를 갖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찾아, 큰 어려움을 입은 교회를 찾아 그들과 동역하라”고 조언했다.

지난 2017년 리더머장로교회 목

고 했다. 그는 “모든 이들이 1년 동안 온라인에 접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관계성을 맺고 의사소통을 하는지에 변화가 있을 것을 의미한다”며 “아마도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전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켈러 목사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큰 희망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정치인들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는 실망스러운 일이다. 대유행이 완화되기 시작할 때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점수를 매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지역 차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이들이 ‘우리가 사회의 파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인종,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양극화의 감소를 실제로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 美 윌로우크릭교회 흑인 목사 “다인종 교회서만 목회할 것”



에드 올리 주니어 목사 ©YouTube/Willow Creek Community Church

미국의 초대형 교회 중 하나를 이끌고 있는 흑인 목사가 인종적으로 다양한 교회에서만 사역할 것이라고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시카고 인근에 8개 캠퍼스를 갖춘 윌로우크릭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의 노스쇼어(North Shore) 캠퍼스 담당 에드 올리 주니어(Ed Ollie Jr.) 목사는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이는 오래 전 자신이 가족과 함께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윌로우크릭교회가 주최한 ‘인종에 대한 흑인 역사의 달’ 토론회에서 이 교회의 사우스배링턴(South Barrington) 캠퍼스를 이끄는awn Willams) 목사에게 자신이 다민족 사역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당시를 회상하며 그는 “우리는

오래 전에 결정을 내렸다. 결코 (인종적으로) 다양하지 않은 교회의 일부가 될 수는 없다”며 “나는 다른 교회들이 좋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다. 단지 (인종적 다양성이 없는 교회는)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했다.

올리 주니어 목사는 자신의 종조부(great uncle)가 미국 남부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쿠 클럭스 클랜(Ku Klux Klan)’에 의해 참수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윌리엄스 목사도 16살이던 시절, 자신의 흑인 친구가 백인 소녀와 교제했으나 인종적 이유로 그녀의 부모에게 반대를 받아 자살했다고 털어놓았다.

올리 주니어는 인터뷰에서 “이야기는 우리가 중단하거나 멈추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삶에서 일어나는 마이크로 어그레션(mi-

croaggressions)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란, 악의적인 의도는 없지만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인종·문화·신념 또는 성별 간의 언어 또는 신체적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그는 윌로우크릭교회에 대해 “우리는 극도로 힘들고, 온갖 오해와 고통으로 가득 찬 것(인종적 다양성)을 열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독특하고 이상한 곳이라 생각한다”며 “여러분이 이것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고, 온갖 종류의 도전에 맞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미국 내에 인종적 각성이 있었지만 최종 결과가 어떠한지 확신할 수 없다고 “새로운 차원의 인식이 형성돼 있지만, 그 인식의 진상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시간과 배움이 필요할 것”이라며 “내가 목회하는 공동체의 34%가 아시아인이며, 그들은 우리 삶의 일부이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런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 “종교 예배 참석” 미국 젊은 층 24% 수준... 팬데믹 전 기준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전에도 미국의 젊은 층의 30%가 예배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미국 보수 청년 단체인 ‘영 어메리칸즈 재단(Young Americans Foundation)’이 올해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미국 고등학생 801명과 13세에서 24세 사이의 학생 8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설문 조사는 응답자들에게 “코로나 19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종교적인 예배에 얼마나 자주 참석했는가”에 대해 물었다.

전체 응답자의 27%는 종교적인 예배에 “절대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고교생은 26%, 고교 졸업자는 28%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생부터 24세 사이의 미국 젊은 층의 약 4분의 1 (24%)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에 참석한다”고 답했으며, 고등학생의 매주 예배 참석률은 19%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14%는 “한 달에 한두 번” 종교 예배에 참석한다고 답했으며, 고등학생은 12%, 고등학교 졸업자는 16%가 동의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15%는 “1년에 몇 번” 종교 예배에 참석한다고 답했고, 12%는 “종교적 명절에만”

예배에 참석한다고 답했다.

고등학생 중 “일년에 몇 번” 예배에 참석한다는 응답은 15%였고 종교적 명절에만 참석한다는 응답이 10%, 무응답은 9%에 달했다. 고교 졸업자는 15%가 “일년에 몇 번” 종교 예배에 참석한다고 답했으며, 14%는 “종교적 명절에만” 참석했고 9%는 무응답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거의 절반(48%)이 특정 종교와 자신을 동일시하기를 거부했다. 응답자의 16%는 “자신의 종교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말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고, 15%는 자신의 종교가 “그 밖에 다른 것(something else)”이라 말했고 10%는 “무신론자”로, 7%는 자신을 “불가지론자”라고 답했다.

카라 주프쿠스(Kara Zupkus) YAF 대변인은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젊은이들의 종교 참석률이 낮아진 데 대해 “요즘 대중 문화와 정치인들을 우상화하는 우리 문화의 추세 때문”이라며 “그래서 그들은 신을 숭배할 수 있는 곳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주프쿠스는 이런 추세에 대해 “우려한다”며 교회와 지역사회가 아닌 “정부에 더 의존하는 젊은이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유진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 이민법 전문 변호사

#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박사/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문화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클리닉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 마이크 폼페이오, 프리덤 센터 상임고문 내정... "종교 자유 위해 노력"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 ©미 국무부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전 미국 국무장관이 종교자유 선진화를 위한 '스탠딩 포 프리덤센터(Standing for Freedom Center)'의 상임 고문에 내정됐다고 15일 미국의 리버티 대학교가 공식 발표했다.

앞서 폼페이오는 13일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장관으로서 전 세계에 추진했던 종교적 자유 권리를 더욱 진전시키고, 평생 간직해온 가치를 보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특별한 곳에 살고 있으며, 나는 여기 미국의 집에서 계속 그렇게 하며, 그 자유를 해외로 확장하기 위해 계속 일하고 싶다"며 "이 센터가 그 일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센터의 전무 이사인 라이언 헬펜베인(Ryan Helfenbein)에 따르면, 폼페이오와 함께 이 단체에 새로 합류한 인사에는 마이크 허커비(Mike Huckabee) 전 아칸소 주지사, 친생명 지지자로 변신한 에비 존슨(Abby Johnson) 전 가족계획연맹 이사, 기독교인 사업가인 데이비드와 제이슨 벤햄(David and Jason Benham) 형제 등이 있다.

헬펜베인은 CP에 보낸 성명에서 "이 동료들은 우리 센터가 상징하는 핵심인 신

앙, 자유, 복음과 진리 중심의 참여 문화를 구현하고 있다"며 "나는 이 충실한 세계를 바꾸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 자랑스럽고, 우리 센터가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폼페이오 장관은 모든 신앙의 사람들을 위한 종교적 자유 보호는 물론, 무신론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CP에 자신의 관점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미국에서 공격받고 있으며 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모든 미국인들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종교의 자유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교인들과 대화가 필요하며, 교육자들은 미국 헌법이 정부는 국민에게 자유로운 종교 행사를 허용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종교적 자유의 권리가 공격받고 있다. 시의회, 카운티 위원회, 주 선출직 공무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며 "모든 국민은 자신의 공간, 작은 지역 사회,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종교의 자유를 진전시키기 위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 리처드 랜드 "인종 갈등 확산 주범은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 ©미 국무부

남부 복음주의 신학계의 총장 리처드 랜드 박사가 미국 내에 인종적 불만을 확산시키는데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이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랜드 박사는 16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서 '인종적 불만을 심고 있는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Social media and the internet sowing racial discontent)'이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미국 내 인종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진보좌파들조차 인종적 적대감을 부추기는 언론의 역할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랜드 박사는 린던대 정치학 교수인 에릭 카우프만(Eric Kaufmann)이 뉴스위크 최신호에서 '언론과 전국민적 대화가 인종차별을 조장하거나 적어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연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어떨까?'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면서 "그는 소셜 미디어가 어떻게 대중의 현실 인식을 왜곡할 수 있는지를 강력하고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카우프만은 연구에서 설문 응답자들에게 '젊은 흑인 남성이 교통 사고로 사망할 확률보다 경찰의 총에 맞아 죽을 위험이 더 크다고 믿는가?'라고 물었고, 이어 '백인 공화당원은 인종차별주의자였는가?'라고 질문했다. 결과는 두 번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바이든 유권자(53%)는 트럼프 유권자(15%)에 비해 첫 번째 질문에 긍정적인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그러나 실제 통계로는 흑인 남성이 교통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경찰의 총에 맞아 죽을 위험보다 10배 더 높다고 랜드 박사는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오늘날 미국의 인종에 대한

거짓되고 파괴적인 이야기가 진보주의자들과 우리의 전국 언론에 의해 짜여지고 있다"며 "진실과 현실은 훨씬 다르며, 긍정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미국이 얼마나 건국 문서의 약속에 따라 살았는지에 대한 용감하고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여성 리더십 경영 컨설턴트인 캐슬린 브러쉬(Kathleen Brush) 박사의 최근 저서인 '1945년 전후 세계의 인종차별과 반인종주의'에 대해 소개했다.

브러쉬 박사는 "10년이 넘도록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에 대해 연구해왔으며 체계적인 인종차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다. 미국은 이와 정반대"라며 통계를 근거로 설명했다.

랜드 박사는 이 통계에서 "흑인 미국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변영하고 교육받은 흑인 인구이고,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 인구의 GDP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가장 높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고 변영하는 민족 집단이며, 그들의 수입은 백인 평균보다 25% 높고, 인도가 미국인은 60%나 높다"며 "매우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랜드 박사는 "브러쉬 박사의 연구와 그녀의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느낀 것이 옳았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미국은 구제불능의 인종차별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반인종주의 국가 중 하나이며,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하고 자랑스러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 교회혁신교회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차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침례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수, 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토)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토)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위한 2세대를 위한 교회, 이민자를 위한 교회, 선교를 위한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in 코너)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토)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토)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수, 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눔과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주)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청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수) 오전 5:30  
리셋에델미엔(소매) 오전 11:00

**정정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 친, 초 정신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신도/노키 관리부 지역 유망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토)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운 백이 함께 말하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e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월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영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침례 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종교개혁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종교개혁 주간 10:30 금요일(아침)기도회(마침)오후 8:00  
중보기도일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벨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개혁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헌악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개혁 주간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벨리제물 MP제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교육부 후원예배  
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전 9:30 (수요주중예배: 오후 6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종교개혁 주간 11시 (금요일주중예배: 오후 7:30)  
1954 Ronald St., Northridge, CA 91326 EM: 오후 1:30  
T. (818)9363-5887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종교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종등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개혁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종교개혁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및/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어라,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T.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m.com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터키 내 기독교인 종교자유 침해, 갈수록 증가...이유는



터키 이스탄불 ©Pixabay

미 주간지 뉴스위크가 "터키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위험한 박해에 직면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13일 게재했다.

이 글을 쓴 레라 길버트(Lela Gilbert) 미국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의 종교자유 선임 연구원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이슬람 정권과 그의 신오스만 의제가 터키의 반 기독교적 적대감을 증폭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는 "2016년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이후, 터키 정권은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몰고 가면서도, 가끔씩 기만적일 정도로 호의적인 행동을 취했다"며 2020년 7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스탄불에 있는 1500년 된 성소피아(Hagia Sophia) 박물관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기로 공개 선언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그것과 이스탄불 코라에 있는 아름다운 '성 구세주 교회(Chora Church of the Holy Saviour)'의 변형은 몰수되거나, 폐쇄, 철거 혹은 모스크로 개조되는 터키 기독교회의 팽창하는 흐름으로 합쳐졌다"고 했다.

길버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정권의 기독교인에 대한 적대감과 학대이며, 이는 신앙 집단과 개인 모두에 해당한다"면서 "많은 소식통들은 터키의 기독교 난민들이 기존 교회나 공동 종교인들과는 거리가 먼 외딴 곳으로 보내져 별시를 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터키어를 구사할 줄 알아요, 기독교인 남성들은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언어와 종교적 문제로 인

해 (기독교인) 여성과 아이들은 일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데에서 배제되었다"며 "당국의 부당한 대우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ISIS(이슬람 국가) 테러 단체를 피해 터키로 이주한 난민들을 돕고 있는 렌지 디릴(Remzi Diril) 칼데아 카톨릭 신부에 대해 소개하며 "기독교 가정을 방문하고 위로하며 종교 예배, 성례전, 유아 세례 및 자선 지원 등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 디릴 신부의 노부모는 그들의 집에서 납치되어 살해되었고, 디릴 신부는 이듬해 3월 터키 인권국에 사건 수사를 의뢰했지만, 거절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길버트는 "1년여 전 어머니의 시신이 고문의 흔적과 함께 발견된 채로 발견된 동안, 실종된 아버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도 없다"며 "이 끔찍한 범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길버트는 또한 2019년부터 목사의 배우자 등 73명의 외국인 기독교인이 터키에서 국외로 추방되어, 터키 당국이 무고한 가정을 해체시키고 있다는 '프렌즈 인 사이드 터키'의 보도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들 근로자 중 일부는 도착 즉시 여권 관리국으로부터 재입국이 거부된다"며 "다른 사람들은 여행 서류에 N82 비자 스탬프를 받고 공중 보건, 안전 및/또는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잘못 표기하여, 터키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미얀마 기독교인들이 정글로 피신한 사연은?



미얀마 기독교인들 ©오픈도어즈

국제 기독교선교단체 '오픈도어즈(Open Doors)'는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미얀마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관해 최근 발표했다.

18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치트(Chit, 가명) 목사는 쿠데타 이후 그의 작은 교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포함한 18명의 교회 신도들이 정글로 피신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픈도어즈와의 인터뷰에서 미얀마 정치 지도부를 규명한 군사 정권이 현재 교회, 사무실, 카페, 주거용 건물 등을 습격하며, 시위자들을 색출해 총을 쏘고 전했다.

현재 그와 신도들은 정글에서 땅을 파고 구멍을 뚫어 그 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 쿠데타로 인해 식량 가격이 두 배로 올라, 그의 공동체는 밀림에서 뿌리와 잎 등을 채취하여 생계를 이어간다고 전했다.

미얀마는 쿠데타 이후, 인터넷 통신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오픈도어즈는 현지 파트너들을 통해 440만 기독교인이 직면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단체는 미얀마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위협 중 하나는 군부에 의한 강제 징집이라고 지적했다.

외딴 마을에 사는 한 목회자는 오픈도어즈의 파트너인 르윈(Lwin)을 통해 "지난 주에 마을 촌장이 군복무요원 30명을

모집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지금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은 숲 속에 숨어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르윈에 따르면, 미얀마 국민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 속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양곤(Yangon)주에 거주하는 기독교인 민 나잉(Min Naing)은 인터뷰에서 "매일 집 근처에서 총성과 수류탄 소리가 들린다. 대부분의 집은 오후 8시 이후에 불을 켜지 않으며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다"며 자신이 "현재 아무런 보안 없이 양곤의 한 가운데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쿠데타 이전에도 미얀마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직후, 군사정권과 소수민족 반군 사이에 무장투쟁으로 내전을 지속해 왔다.

특히 긴 내전은 기독교 신자 비중이 가장 높은 카렌(Karen), 친(Chin), 카친(Kachin) 등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로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 인구 중 4%에 불과한 기독교인(개신교 3%, 가톨릭1%) 가운데 10만 명 이상의 개신교인들은 수년간 국내 실향민 수용소에서 제대로 된 음식과 의료 공급을 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

미얀마는 오픈도어즈 월드와치리스트가 선정한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50개국 중 18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 '퀴어축제 축복식' 이동환 목사, 이번엔 목사안수 참여 논란



이동환 목사(앞줄 빨간색 동그라미)가 목사안수식에서 정모 전도사의 안수보좌에 참여한 모습. 지팡이 왼쪽이 정연수 감독. ©유튜브

이동환 목사(경기연회 수원영광제일교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제80회 중부연회(감독 정연수 목사) 목사안수식에서 안수를 받은 정모 전도사의 안수보좌로 참석해 교단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동환 목사는 '퀴어축제 동성애자 축복식' 집례를 이유로 감리회 연회 재판에서 '정적 2년' 판결을 받고 현재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항소 중이다.

감리회 목사안수식에서 안수보좌는 연회 소속과 관계없이 안수받는 목사후보자의 요청으로 참석하게 된다고 한다. 이날 정모 전도사는 이동환 목사 1인만 안수보좌로 참석시켰다.

이후 기타토의에서 김재택 목사가 정적 상태의 목사가 안수보좌한 정모 목사의 정회원 허입에 대한 긴급 문제를 제기했다. 김 목사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 주장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회원들의 의견을 묻자, 정모 목사가 속한 일산동지방회 이종범 감리사(굿모닝교회)가 참고 발언했다. 그는 "이동환 목사가 안수보좌를 한다기에, 잘못 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오해될 수 있으니 다시 생각하면 어떻겠냐고 했지만, 어릴 적부터 알았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안수보좌를 요청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감리사는 "그래서 개인적 문제이기 에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었다. 다만 본인의 신앙은 이것에 전혀 동조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어려움도 감수하겠다고 하더라. 그러니 여기서 가부를 묻기보다 이후 정적 상태의 안수보좌가 가능한지, 본인이 그러한 신앙에 동조하는지 등을 연회에서 자적심사 등의 채널로 다루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했다.

이에 의장인 정연수 감독은 "안수받은 정 목사는 과정과 자격 심사를 다 통과했다. 안수는 감독이 주는 것이다. 보좌는 보좌일 뿐"이라며 "보좌에 따라 안수가 무효

화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안수했다. 이상으로 마치겠다"고 답하고 논의를 종결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접한 감리회 목회자들의 반발로 감리회 게시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운순 목사(원천교회)는 '정연수 감독님, 연회 때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라는 글에서 "일개 진급 중에 있는 전도사가 감리사의 권면을 무시할 정도라면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 전도사가 이동환 목사의 사건을 훤히 알고 있을텐데 그를 안수보좌에 초청한 것은 감리교회 전체를 조롱하고 기만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정연수 감독을 향해선 "감독의 지위를 이용해 마땅히 권면하고 빠르게 치리해야 할 선을 넘어, 직무유기와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동환 목사의 재판을 앞두고 판결을 급게 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우려했다.

해당 연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김재택 목사도 "안수는 감독이 하는 것인가? 정 전도사 안수를 감독님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라며 "교리와장정이 필요없다고 하는 것이 '안수는 감독이 합니다'라는 말보다 더 솔직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이후 정연수 감독은 자신의 SNS에서 '팩트체크'에 나서기도 했다. 이동환 목사의 안수보좌 참여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이 골자다.

정 감독은 "46명의 목사 안수자가 초대하는 3명의 안수 보좌 목회자, 150여명에 대한 내사를 일일이 조사하여 자격을 심사할 수 없다. 더군다나 동명인이 감리교회 목사 중 3명이나 있는 상황"이라며 "단 이 사실을 미리 인지한 해당지방 감리사께서 사전에 이 사안을 총무에게나 감독에게 설명했더라면, 일이 터지기 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기에 아쉽다"고 해명했다.

이대웅 기자

# 이찬수 목사 "일만성도 파송운동, 작은 교회와 상생 이뤘다"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가 지난 15일 일만성도 파송운동 3차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분당우리교회

분당우리교회가 '일만성도 파송운동'에 대한 이찬수 담임목사의 3차 중간보고 영상을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목사는 "일만성도 파송운동"이 교회 내부 부교역자 15명과 외부 청빙 교역자 14명을 합쳐 29개 분립개척교회로 이달 첫째 주일부터 시작한다"며 "9개월의 과도기를 거친 뒤 올 연말까지 완전한 독립교회로 분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당초 30개 교회로 분립할 것 이란 발표와 달리, 29개 교구로 분립계획을 수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발표 2일 전, 외부에서 청빙된 한 목사님에게 사정이 생겼다. 보완할 시간도 없고, 인위적으로 30개라는 숫자에 맞추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29개 교구로 분립하기로 했다"며 "30개 교회는 나와 당회에서 결정한 숫자지만, 29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준해주신 숫자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 순리대로 따라야한다는 생각에, 분당우리교회를 포함해 30개 교회로 출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일만성도 파송운동'의 2가지 의미에 대해 "첫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고, 당회와 성도들이 약속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그러나 한

국의 모든 교회가 이런 방향을 따르길 원치 않는다. 각자 교회마다 사명과 미션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 복음 증거 차원의 문제다. 우리는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지난 70~80년대 캠퍼스, 거리 등에서 일반인들의 복음 전도에 대한 긍정적 수용 분위기가 지금은 퇴색된 상황"이라며 "복음 증거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교회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일반 사람들 인식 속에는 교회가 탐욕적인 이미지로 얼룩져 있다. 헌금을 많이 걷고 대형화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일만성도 파송운동이 주님의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꿈에 수종을 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성도들이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당장에는 분당우리교회를 떠나는 게 섭섭하겠지만, 3년, 5년, 10년이 지난 뒤, 이 분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분당우리교회 성도들이 너무도 기쁘고, 이웃 미지립교회들과 상생하고 꿈꾸는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나의 목회기간 동안, 분당우리교회 출석 인원이 5,000명 이상 되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 목사는 "일만성도 파송운동 이후 주일예배를 기존 5부에서 3부로 줄여서 드리고, 주일학교 규모도 4분의 1 이하로 줄일 예정"이라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순리로 잘 풀리고 인위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 분당우리교회와 성도들에게 혼란 없이 일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세백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세백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대(한정)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정예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세백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주요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세백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주요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세백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세백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생으로 활로 살려 생애공평케 하니 그 생애 복을 모든 영혼에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세백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충만하게 세운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세백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후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목요제례예배 : 오후 7시  
세백기도 : 오전 6:00(화-금)  
셀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세백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벌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수요 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세백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에 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청년예배 오후 2: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세백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세백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1학년도 봄학기

##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2021년 3월 22일개강

###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 2021 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30 PM - 9:30 PM	초대교회사	Daniel Min
Tue	7:30 PM - 9:30 PM	데살로니가후서,고린도전서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영성 신학	Elijah Kim
Thu	7:30 PM - 9:30 PM	선교신학2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기독교상담학	Jong Y Kim
Sat	7:30 PM - 9:30 PM	시편	Timothy Song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 이민 교회의 장래



김한요 목사  
베델한국교회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쓰던 동역자들을 “나와 멩에를 같이한” 자들(빌 4:3) 이라고 했습니다. 소 두 마리가 함께 한 방향으로 같은 힘을 쓰기 위해서 멩에는 것이 멩에입니다. 멩에가 바로 목회 철학이고,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민 교회의 장래는 바른 목회 철학과 목표를 가진 인격 있는 목회자 양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남준 목사가 목회자 후보생을 위해 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에서 한 신학교에서 데모하며 외치는 구호를 보았다고 합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선택 과목으로! 선택 과목으로!” “과락 많이 시키는 헬라어 교수, 물러가라! 물러가라!” 김목사는 “성경을 털도 안 뽑고 먹으려는 도둑놈들이 신학교에 들어왔구나!”라고 슬퍼하면서 불교의 팔만대장경도 7년 정도 한자를 공부해야 읽을 수 있는데, 성경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은 목회 전문가 되기를 포기한 ‘미친’ 신학생과 같다고 말합니다.

회교도들도 어려서부터 코란을 읽기 위해 모국어 외 아랍어를 배운다고 합니다. 성경 전문가가 되어야 할 목회자로서 이교도들의 이런 열심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더욱 바른 목회자를 키워내야 이민 교회의 앞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어 공부를 해야 소망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충실히 책임을 다하는 바른 태도의 목회자를 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바른 목회자가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들이 왜 제일 먼저 학교를 세웠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골 골짜기 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일꾼들을 키워내는 것이 2, 30년 후에도 이민 교회의 역동성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를 기다리며, 이제부터는 한 사람의 바른 목회자를 키워내는 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애써볼까 합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민 교회의 장래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2, 30년 후의 이민 교회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이민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다음 세대의 교회도 한인교회로 존재할까요?” “이민이 끝나면 이민 교회도 끝날까요?”

저는 이민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언어와 문화적인 문제는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쌍둥이조차도 세대 차이가 있다는데,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서 소통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어나 문화보다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 철학과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동역의 원칙은 사역 철학과 목표의 공유입니다. 범교회적으로 사역할 때에도 이 원칙은 고수되어야 하며, 한 교회를 같이 섬길 때는 더욱 필수 불가결한 원칙입니다. 사도

## 성경에 기록된 나손 같은 믿음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께 걸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일주일 만에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손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 그들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는 바울을 책임져주시기 위해 나손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한 나손은 성경에 그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겐 헌신하는 것이 고생이고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하나님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가서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영적인 깊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깊은 곳으로 가려면 우리 앞에 놓여진 ‘말’과 ‘말씀’ 가운데, ‘말’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가야 합니다.

사실 세상의 ‘말’을 따라가면, 한국의 일부 공무원들이 국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처럼 돈 벌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말’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결국 세상과 함께 절망의 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끝으로 갈수록 좋아지고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일수록,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에 맡겨진 WCBA 행사를 섬겼던 나손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다 나손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정성욱 교수의 조직신학 에세이

# 교회론(2)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덴버신학대학원 정성욱 교수

랑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동일한 진리를 선포한다.

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 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

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

30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1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울은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선언한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적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진리가 바로 큰 비밀, 위대한 미스터리라는 것이다. 이 진리를 구약으로 밀고 간다면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는 장차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맺게 될 영적 부부관계에 대한 예

표요 그림자였다. 이 진리를 영원의 차원으로 끌고 간다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실 때, 성부는 교회를 당신의 아들의 신부와 아내로 선택하셨다는 의미인 것이다. 정말 놀라운 신비, 신적인 비밀이 아닐 수 없다.

이 진리를 삼위일체론적으로 총체적으로 정리한다면 창세전에 성부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예정하신 사건(엡 1:3-6)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히 2:10)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를 준비하시는 경륜이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인 결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된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영적 사건이 담고 있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미지는 교회의 무한한 영광과 특권을 표현하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신랑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한다. 영원한 왕이시며,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특권을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부요함,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거룩과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주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만유에 대한 소유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시는 끝없는 성령의 충만 등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요 특권이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이런 특권과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 받았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혹시 알더라도 크게 관심을 갖

지 않고 도리어 다른 부차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신랑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광과 특권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눈을 뜬 교회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껌껌하거나, 궁색하거나, 주눅이 들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자존감과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보여줄 수 있는 힘있는 공동체가 될 수 밖에 없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내세울 수 있다고 여겨지는 대단한 건물과 많은 성도의 숫자 그리고 튼튼한 재정 등이 없다 하더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적이고 무한한 부요함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도리어 가난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공화와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미지는 교회의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표현할 뿐 아니라, 교회가 가진 무한한 책임도 드러낸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신랑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 신부가 거룩과 정결을 떠나서 더러움과 불결함과 음란함 가운데 있다면 그 신부는 심각하게 타락한 신부일 수 밖에 없다. 무한히 거룩하신 신랑 앞에 선 신부로서 교회는 모든 면에서 거룩과 정결을 추구해야 한다.

이 말은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더러운 타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지위와 배경이 있는 사람을 후대하고, 세상에서 별볼일 없는 사람을 차별하고 천대하는 세속적인 작태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 도리어 세상에서 천대받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될 때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공헌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교회는 거룩한 신랑을 닮은 거룩한 신부의 공동체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교회 안에서 헌금을 모금하고 그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철저히 투명성과 책임성을 견지해야 한다. 세상에서 횡행하는 투기, 배임, 횡령, 불투명한 재정집행 등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교회가 거룩하고 투명한 행정과 경영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많은 실패를 경험해왔다. 과거의 잘못과 오류를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그래서 진정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때에야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참된 교회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셋째, 교회의 신랑되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진리는 성도들이 부부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영적 교훈을 담고 있다. 그것은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함을 그리고 심지어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해야 함을 가르친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습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부부관계는 성도들의 부부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모델인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이 놀라운 진리들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한다.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그리고 이 지식이 손과 발로 내려와 실천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참된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멀티슈  
 주일제전  
 2021년  
 금미라고  
 마그네틱 원형물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0년만 시공하면 원가보다 저렴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양자 깔창**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어든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향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 끝날의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요한계시록 11:1-13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되 2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4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5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중략)**...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11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심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사람들은 조건과 환경이 여유롭고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면 그것이 지속되길 바랄 것이고 사업이나 건강, 생활환경이 여유롭지 않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빨리 죽거나 역사의 종말이 빨리오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두가지 모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든지를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가르친 사람들 때문에 종말론이 왜곡되게 가르쳐져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고있는 성도들이라면 그러한 이단사상에 동요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서 역사적 종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한이 모두 차면 지금 있는 것들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7년동안 환란의 시간이 온다고 합니다. 처음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그 환란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지옥까지 가게 하기 위하여 용기를 북돋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란 날에 능력의 증인을 보내어 믿음의 힘을 돋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의 '거룩한 성'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흔 두 달은 1,260일이고 그것은 3년 반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안은 교회가 적그리스도에 붙인 바 되어서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 환란의 기간 동안 진실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환란을 통해 성도의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 쓰릴 것이며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될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단7:23-27)”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2-8에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사분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백마는 예수님의 상징으로 복음사역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가지고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제국주의 시대가 그 뒤를 잇는다는 의미이고 손에 저울을 가진 검은 말을 탄 자는 자본주의를 의미하며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망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니엘과 요한이 받은 계시가 시간적으로는 8~9백년 차이가 있더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동안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며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면 후 3년 반 동안은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 기둥과 70년동안 노예생활한 모든 품삯을 받아오게 하셨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축으로 세워 제2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웅대한 성전에 비하면 보잘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비록 모양은 보잘 것 없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들이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라 4:3에서 얘기하는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감람나무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1:1-2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연합을 위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사용하였던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절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는 것은 영적으로 구원 얻을 사람들을 보살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이방인들과 더불어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며 그 사람들은 계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환란 당할 때 예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데 그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할 것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며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는 이들의 입에서 불의 권세가 나가서 악의 무리들을 무찌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한 증인들의 이적 기사들을 볼 때 성도들은 핍박과 환란을 통해 믿음

이 약해져 있을 때에 환란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밀바닥이 없는 구멍, 즉 무저갱으로부터 짐승들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켜 권세와 힘을 얻은 증인들과 싸워서 이 증인들은 순교를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칭찬과 상급을 바라며 담대하게 나아가 오히려 순교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짜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이 두 증인을 죽였던 이유는 자신들의 양심을 괴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꺼려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 생활했다간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부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와 바른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에 길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후 3년 반의 환란을 겪고 나중에 지옥 유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성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 영광중에 결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닳고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르므로 너희는 잠자울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눅 21:31-36)

###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에,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1959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계교회협의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고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우수상, 매년 푸리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찬양평론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회 일직상,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간조의 목장영성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집회 활동은 많은 목자들에게 전한 감동과 생명을 선사하고 있다.

339면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교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혁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호남신대학교, 정호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희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신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전도회장, 총회 군-농어촌 부흥, 회의록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원, 총회사기, 호남신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총회 논설위원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직 CBS 운영이사, 호남신학대학교 객원교수, 한남대학교 이사, 한국노인교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380면 / 15,000원

한글인터넷주소 쿨란, 쿨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이화장길 6 ☎ 02-747-1004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디트리히 본회퍼, 오해와 편견 (15)

# 민족 내세우지만 이웃 사랑하지 않는 한국 사회, 기독교적 반성

한일 양국 문화 속, 자기중심적 민족 이념의 덧없음  
기독교 신앙과 한민족 이념의 연합 불가피했겠지만  
민족 이념 치우친 기형적 복음 양산 정당화 못할 것

◆민족 이념의 득세: 20세기 한일 양국에서 민족 이념의 힘

19세기 중후반부터 2021년 현재 까지, 민족 이념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근현대사 전반에 걸쳐 각각의 정신문화를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사고로 군림해 왔다.

두 나라의 민족 이념은 겉으로 보기에 그 양상이 크게 달랐다. 일본의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적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공세적 양상을 보였고, 한국의 민족주의는 국가 멸망의 현실 앞에서 생존과 정체성 보존에 사력을 다하는 수세적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양측 모두 자국 민족의 이익과 번영을 절대선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과 갖고 있었다. '민족의 이름으로, 민족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이라도 정당화되는 이런 사고는 극단적으로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게다가 '민족'이라는 개념의 정체 자체도 모호할 때가 많아서, 대개의 경우 민족 이념은 실제 그 민족 구성원 다수의 생존과 행복이 아니라 소수의 지배층이 누리는 권력과 이권을 보장하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활용되곤 했다.

대중문화 콘텐츠는 이 민족 이념을 고취시키는 프로파간다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곤 했다. 특히 미디어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일반 대중의 문화 콘텐츠 접근성이 무한대로 확장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대중문화는 민족주의 정서를 고취시키는 최선의 방편으로 여겨져 왔다.

일본 시대극이 일본 전통문화를 극단적으로 미화해서 그 우수성을 앞세우고, 일본 메카닉 애니가 일본 전자기술과 기계기술의 우월성 홍보에 앞장섰던 것과 같이, 한국의 시대극은 한민족의 일방적 선량함과 고상한 선비적 도덕성을 내세우고, 한국의 현대 일상을 배경으로 삼는 드라마들은 오늘날 한국인의 열정적이고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을 광고하는 데 열심이다.

그러나 양국의 삶의 현실을 주의 깊게 살펴볼 때, 과연 한일 양국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한껏 분철해서 표현한 것처럼, 두 나라 민족의 정신문화와 인격적 자질이 그렇게 훌륭하고 출중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20세기 한국에서 '민족'이라는 단어는 주술과도 같은 힘을 가진 용어였다.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신앙마저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이 없으면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일제시대 한국 기독교계가 나라 잃은 한민족을 기반으로 유리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비유하면서 국권 회복을 위한 기도에 전념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독교계 내에 침투한 이 폐쇄적이고 맹목적인 민족 이념은 오늘날까지 한국교회 곳곳에 남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광훈 목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가 설파하는 것 같은 기형적인 형태의 정치적·민족적 신앙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숙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유념한다면, 한국에서 기독교 신앙과 민족 이념의 연합은 일정 부분 불가피했던 면이 있다. 그러나 이런 불가피성이 민족 이념에 치우친 기형적 복음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한국교회의 형성과 성장에 민족 이념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 기독교 선교가 막 시작될 무렵 네비우스 선교 전략이 큰 효과를 거두었지만, 그렇다고 한민족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설파할 성경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앙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인간을 더 이상 민족 단위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민족 이념의 앞날: 민족이 사라지는 현실에서 민족 이념의 덧없음

본회퍼의 신학은 이 점을 힘써 강조한다. 본회퍼는 그의 저서 <성도의 교제>와 <창조와 타락>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사람을 민족의 일원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개별적인 인격으로 바라본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한다.

기독교 복음이 가르치는 신-인 관계, 그리고 인격 대 인격 관계의 가장 온전한 원형은 창세기 에덴동산 기사 속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아담과 여자의 관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초의 온전한 인격 대 인격 관계였다. 이 두 사람은 단순히 부부 혹은 돕는 배필 이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적인 타자성을 확보한 개별 인격이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상대를 지배하지 않고 대상화하지 않는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초월적인 존재자임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상대를 실천적으로 존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관심 안에 두신 아담과 여자에게 기대하는 인격적 관계였다.

본회퍼의 교회사회학은 바로 이 원초적 인간관계를 어떻게 죄악이 관영한 우리 현실에 펼쳐나갈지 고민하는 논의이다. 그래서 그의 신학 사상 속에서는 민족 이념이 해체의 대상으로 지목된다.

독일의 극단적 민족 이념이 조장하는 수많은 인종범죄의 현실을 목도했던 본회퍼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통해 다수의 개별 인격을 무리짓



한민족이라면 북한 군인까지도 선량하고 매력적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민족 이념이 반영된 대표적인 인기 드라마 중 하나이다.

고 갈라치는 행태를 인간의 가장 악질적인 죄성, 원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지목한다.

기독교 복음의 입장에서 독단적이고 맹목적인 한민족 중심주의, 한민족 우월주의는 단지 복음 전파의 장애물일 뿐 아니라, 고질적인 죄악으로도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민족주의가 결코 절대선이 아닐뿐더러,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정의롭지 못하고 허구적이며 기만적이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만일 한민족이 우리 민족 이념이 가르치는 것처럼 학구적이고 고고하고 선량한 성품을 가졌다고 한다면, 같은 민족 구성원을 조직적으로 노예화하는 가혹한 노비제도가 19세기 말까지 존재했던 사실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미국이 1863년에 이르러서야 흑인 노예들을 해방했던(그것도 실질적으로가 아니라 거의 명목상으로) 사실을 지탄하고 그 야만성에 조소를 보내지만, 조선 역시 미국 남부 흑인 노예제도에 못지않은 가혹한 노비제도를, 그것도 자민족을 조직적으로 노예화하는 제도를 1886년까지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임진왜란 당시 한양 도성 백성 상등수가 왜군 임성을 환영하고 노비 문서부터 불지르려 했던 것이나, 일제강점기 직전까지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상민들과 노비들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환영했던 사실 역시 우리 민족 이념의 윤리적 허구성을 보여준다.

일제의 식민지 치세도 정의롭지 못했지만, 그 이전에 한민족 지배층의 자민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압제가 일제 식민지 치하 압제보다 여러모로 더 심각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손에 잡히지 않는 민족 개념은 신봉하면서 그 민족에 속해 있는 현실의 이웃과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착취하고 압제하는 데 몰

두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민족 이념인가?

전체주의적 악습과 갑질문화가 팽배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진지하게 제기해야 할 물음이다. 인격 대 인격 관계를 망각하고 내세우는 민족 이념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기독교적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민족 이념은 윤리적 차원에서 허구적이지만, 존재적 차원에서 점차 허구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한국의 인구 전망과 연관되어 있다.

민족 이념을 지탱할 민족 구성원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농후한 현재의 대한민국 인구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떠받들어 온 한민족의 민족주의는 사실상 신기루나 다름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민족 이념은 문화적으로 볼 때도 이율배반적이다. 국민 대다수가 이 민족 이념에 의거해서 반일을 외치는 와중에, 극장가에서 <귀멸의 칼날> 같은 작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상 한일 양국의 민족 이념, 특히 한국의 민족 이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전체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민족 이념은 일본의 민족 이념과 본질적으로 매우 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양국이 서로 반목하는 가운데서도 문화적인 공감대 형성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윤리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민족 이념이 기준이 되는 사회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심각한 모순에 처하게 된다. 눈앞의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면서 정작 그 이웃을 포괄하는 민족이라는 우상만을 숭배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런 여러식음을 버리도록 이끈다. 민족이라는 관념적 집합기호가 아니라, 삶의 직접적인 현실에서 마주치는 세계 열방의 사람을 마주하고 존중하고 구원으로 초대하도록 가르친다.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 및 철학의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강의를 하는 중이다.

필자는 오늘날 포스트모던 문화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교회가 보존해온 복음의 역사적 유산들을 현실적 삶의 경험 속에서 현상학과 해석학의 관점으로 재평가하고, 이로부터 적실한 기독교적 존재 이해를 획득하려는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최근 집필한 논문으로는 '종교경험의 가능근거인 표상을 향한 정향성(Conversio ad Phantasma) 연구', '상상력, 다의성, 그리스도교 신앙', '선협적 상상력과 그리스도교 신앙', '그리스도교적 삶의 경험과 케리그마에 대한 후설-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이해방법' 등이 있다.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Bricolage in the Movie)란

브리콜라주(bricolage)란 프랑스어로 '여러가지 일에 손대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용어는 특정한 예술기법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주 사용된다.

브리콜라주 기법의 쉬운 예를 들어보자. 내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창시절에는 두꺼운 골판지로 필통을 직접 만든 뒤, 그 위에 각자의 관심사를 이루는 온갖 조각 사진들(날렵한 스포츠카, 미인 여배우, 스타 스포츠 선수 등)을 덧붙여 사용하는 유행이 있었다. 199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냈다면 쉽게 공감할 것이다.



히틀러가 이끌던 나치의 사상적 근간은 지독하게 폐쇄적이고 편협한 독일 민족주의였다. 본회퍼는 이 사실을 통해 민족 이념이 인간의 죄성을 구체화하는 주된 방편 중 하나임을 확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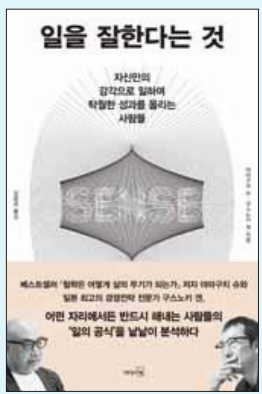


조선 말기 노비들의 사진. 조선의 노비제도는 한국의 민족 이념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조작되고 급조된, 허구적 이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어려움 돌파하는 리더 나오길**

# 여호수아처럼 '일 잘하는 감각' 기르는 4가지 방법

1. 감각 있는 사람에게 배운다
2.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3. 추상적 사고를 연습한다
4. 경험에서 확신을 찾는다



일을 잘한다는 것  
야마구치 슈, 구스노키 겐  
김윤경 역  
리더스북 | 248쪽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어떤 자리에서든 반드시 해내는 사람들의 '일의 공식'**

일하는 사람은 많은데 왜 일을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까?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출발선은 스펙이 아니라 '감각'에 달려 있다

모두가 인정하는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일의 감각을 키우고 발휘하는 법!

인재가 필요한 시대다. 세상은 인재를 원하고 있다. 인재는 힘든 상황을 바꿀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같이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킬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인재와 함께 일하고 싶어한다. 더 나아가 자신도 인재가 되고 싶어한다.

어떤 사람이 인재인가? 인재의 특징은 일을 잘 한다는 것이다.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외교관을 선발할 때 많은 고민을 한다.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격도 까다롭다.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스탠퍼드 대학 같은 명문 대학 출신 중에서도 좋은 성적의 사람을 가려 뽑는다.

그러나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최악의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 담당자는 하버드 행동심리학 연구소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 결과 새로운 인재 선발 기준이 만들어졌다.

이 기준은 기술과 지식이 아니라, 공감 능력과 포용 능력,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이었다. 일을 잘하는 것은 '기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일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일본 최고의 컨설턴트 야마구치 슈와 일본 최고의 경쟁전략 전문가 구스노키 겐은 <일을 잘한다는 것>에서, 일을 잘하는 것은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감각'의 영역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비대면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일할 때, 더욱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책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한 '감각'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기술(skill)'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감각(sense)'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일머리 있다'고 표현한다. 일머리는 기술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일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컴퓨터를 잘 다루고 외국어를 유창히 하는 기술이 있다 해도,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다.

경제활동은 물론, 일상생활부터 삶의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의 영

향을 받고 있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일하던 방식'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문화 전반에서 오프라인의 온라인화가 가속화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여전히 예전에 성과를 내던 업무 방식을 '최선의 업무 방식'으로 믿고 고수하려는 사고는 매우 위험하다."

저자는 최근 20여 년 동안 비즈니스 업계는 '논리적 사고가 성공적 비즈니스를 이끈다'는 생각이 지배했다고 말한다. 국어, 수학, 영어, 이과, 문과로 나누는 능력은 모두 기술에 해당한다. '잘한다/ 못한다'로 명확한 구분이 가능했다.

그러나 요즘처럼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서는 논리나 기술로는 일을 잘하기 힘들다. 정답 없는 문제와 흑백을 가릴 수 없는 난제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각'이 필요하다.

저자는 '감각'도 단련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감각을 갈고 닦는 일 이야기말로,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과

정에서 얻을 수 있는 참다운 묘미라고 말한다.

책은 감각을 기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감각 있는 사람에게서 배운다**

이것이 가장 손쉽고 빠르게 감각을 익히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메모하는 방법, 대화 상대에게 질문하는 방법, 회의를 이끄는 법, 책상 배치나 식사 습관, 심지어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등 모든 것을 배우려고 노력한다.

**2.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인간을 이해하는 것에서 감각은 자라난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대표적인 예가 스티브 잡스다. 스티브 잡스는 시장조사에 부정적이었다. 스티브 잡스는 데이터가 아닌 인간 이해에 바탕을 두고 신제품을 만들었다.

**3. 추상적 사고를 연습한다**

감각이나 예술 또는 직관은 우뇌에서 담당한다. '감각'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하는 힘이다. 논리는 차곡차곡 쌓여서 답변에 이르는 것이고, 직감은 답변을 이미 지로 만들고 떠올리는 것이다.

**4. 경험에서 확신을 찾는다**

1970년대에 발표한 논문에 태블릿 단말기 그림을 실은 사람이 있었다. 이 태블릿 단말기의 이름은 '다이나북'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이 논문을 보며 미래를 예측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문의 저자는 몹시 화를 내며 이렇게 강조했다. "나는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니다. 나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만들었을 뿐이다."

감각이 좋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지를 정확히 인식한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해답은 경험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일을 잘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든든한 마음이 든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다. 여호수아는 일을 잘하는 리더였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위기라는 말이 들려온다.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도 위기다.

이런 시대는 일 잘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세상이 갖지 못한 감각으로 어려움을 돌파하는 리더가 나오기를 소망한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 유독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겐 반드시 강력한 무기가 있다!

격차를 만드는 12가지 일 센스



최고의 기업에서 '진짜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컬라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

매직스레이트 \$120 up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할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함께 대응합시다!

큰 변화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제 COVID의 형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쉽게 퍼지고 있는 이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COVID 확산을 늦추겠다는 우리의 결심입니다. 잊지 않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6피트 거리를 유지하며, 차례가 되었을 때 백신을 접종받는다면 바이러스를 함께 물리칠 수 있습니다.

[cdc.gov/coronavirus](https://www.cdc.gov/coronavirus) 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